

美國, 低레벨廢棄物問題解決 本格化

— 州間 協約合意 促求 —

美國에서는 그동안 중지되어 있었던 低레벨放射性廢棄物의 貯藏(處分)問題가 前進하고 있다.

美國이 低레벨폐기물정책법을 제정한 것은 1980年으로서, 地域마다 州가 協約을 맺어 1985年말까지 地域의 貯藏所를 갖도록 하는 것을 義務化시켰다. 美國에는 3個所의 既設 貯藏所가 있는데, 증가일로에 있는 廢棄物을 이 3個所에만 의존할 수는 없게 되었다.

法制定後 5年 가까이 지났으나 協約의 체결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協約이 이루어진 地域(北東部)에서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채 死文化되고 있었다. 한편, 法的인 의무가 없어진 既存의 貯藏州는 1986年(1月1日)以後 他州의 폐기물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명백히하고 있는 상황에서 1985年末의 期限도 얼마남지 않았다.

따라서 작년 가을 聯邦議會는 期限延長(1993年), 廢棄物의 減量, 年間處分量(貯藏所當)의 시일링設定 등 法改正을 제안하여 事態의 打開에 나섰으며, 州側에서도 全美國 關係州의 協議가 再開된 외에 各地域의 協約締結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년에 Pennsylvania州가 貯藏사이트를 받아들여 인근 3州의 廢棄物을 받겠다고 發表한 것도 그중 하나이다. 同州는 協約交渉을 해온 北東部 11州의 하나로써 廢棄物發生量은 지역전체 발생량의 42%(최대)를 占한다. 最大州가 사이트를 받아들임으로서 發生量 2위(32%)인 New York州도 1991年을 목표로 우선 2年間 사이트調査를 의회에 제안하는 등 地域協約으로의

展望이 밝아지고 있다.

南西部에서도 South Dakota州가 North Dakota州 등 다른 州의 廢棄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 州民投票로 가져갈 예정이어서 아마 州民投票가 관건일 것 같다.

즉, 1980年法の 地域主義는 올바른 方向이나 문제는 어느 州가 사이트를 받아들이는가 이다. 發生量이 적은 州는 사이트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州 단독 처분은 코스트가 높아 경제성이 나쁘다. 北東部의 경우 처럼 中心州가 사이트를 받아들이고, 인접한 州의 廢棄物을 받아들임으로서-그 合理性(經濟性)을 주민에 설득시킨다-비로서 해결이 진척되기 시작했다.

California州(西部)에서는 이미 第1號 貯藏소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 貯藏소의 運營者를 결정하고, 계획의 모든 책임(사이트의 선정 포함)을 맡길 방침으로 작년 8월 WH社가 落札되었고 사이트로 사막이 선정될 전망이었으나, 同州의 計劃은 WH社가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중단되었다. 1980年 廢棄物法은 기한을 설정해서 州의 自主解決을 촉진하였으나, 미해결의 문제가 많았음을 지금까지의 경과로 알 수 있다.

현재 문제점이 명백해졌고 聯邦과 州가 본격적으로 착수하므로 이제부터는 第2段階(1993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州側의 우려중에는 低레벨廢棄物의 정의 문제가 있다. 超우라늄元素의 취급이 미정으로서 低레벨과 함께 處分(프랑스方式)하는 것을 州側은 바라지 않고 있다.